

폴란드 사무소/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9월 2주 ~ 9월 3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① 폴란드 경제 동향

- “폴란드, 경제 호황에도 재정적자 GDP 7% 수준으로 과도” 평가(9.1)
 - 피오토르 칼리시(Piotr Kalisz) Citi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폴란드의 일반정부 재정적자가 2027년에도 GDP의 약 7%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라며, 경제 호황 국면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
 - 특히 2027년과 2028년 모두 선거를 앞둔 시점에 예산이 편성된다는 점에서 재정건전화가 향후 수년간 지연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최소 2028년까지 GDP 대비 7% 안팎의 높은 재정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
- 8월 주요 대도시 신규 아파트 가격 보합세, 바르샤바는 2개월 연속 하락(9.1)
 - 2026년 8월 개발업체의 신규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7개 주요 대도시 중 6곳에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바르샤바만 전월 대비 1% 하락한 m²당 19,600즈워티를 기록
 - 주요 도시별 평균 가격은 크라쿠프 17,300즈워티, 트리시티 17,900즈워티, 브로츠와프 15,900즈워티, 포즈난 14,300즈워티, 우치 11,600즈워티/m² 수준
 - 바르샤바의 가격 하락은 대중형 주택의 공급 증가에 따른 평균가격 하락으로 분석되며, 8월 신규 공급된 해당 주택의 평균가격은 m²당 16,400즈워티로 전체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
- 폴란드 실업률, 8월 5.9%로 소폭 상승(9.7)
 - 한편 Eurostat 기준 폴란드 실업률은 7월 3.4%로, EU 회원국 가운데 체코(3.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해 국제 기준상 폴란드의 고용시장 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폴란드 인플레이션 지속 시 2026년 4분기 기준금리 25bp 인상 가능(9.8)

- Credit Agricole 경제분석팀은 폴란드 인플레이션이 NBP 물가목표 상단의 허용범위를 웃도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통화정책 방향이 완화에서 긴축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망, 통화정책위원회(MP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3.75%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나,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이 확대
- 폴란드, 8월 주택담보대출 신청자 수 전년 대비 7.0% 증가, 주택대출 수요 견조(9.8)
 - 폴란드 신용정보기관 BIK에 따르면 8월 주택담보대출 신청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0% 증가하며, 주택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
 - 8월 신청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액은 525,700즈워티로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
- MSPO 2026, 드론·대드론 체계 중심으로 무인전력 및 방공 기술 경쟁 확대(9.10)
 - 키엘체에서 열린 MSPO 2026에서 무인항공기(UAS),徘徊형 탄약(loitering munition), 대드론(counter-UAS) 체계가 핵심 전시 분야로 부상했으며, 43개국이 참가함

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

- 건설업계, 인력 부족·공사비 급등으로 개발사업 부담 가중(9.8)
 - 우크라이나 부동산 개발업계는 건설인력의 심각한 부족과 건설비용 급등을 주요 경영 애로사항으로 지목, 특히 금년 봄부터 숙련 건설 인력 부족이 더욱 심화된 상황
 - 전면전 이전에는 인건비가 콘크리트·벽돌 등 주요 자재비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인건비가 자재비의 2~3배에 달해 개발사업의 수익성과 사업비 부담을 크게 악화
- 우크라이나 국채 유로본드, 평화협상 재개 기대감에 평균 1.5% 상승(9.9)
 - 미국 주도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평화협상 재개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우크라이나 국채 유로본드 가격이 평균 1.5% 상승했으며,

시장은 주말 협상 재개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반응

○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8.1%로 상승(9.9)

- 우크라이나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 8월 소비자물가는 전월 대비 0.1% 상승했으며, 지난해 8월 물가가 0.2% 하락했던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8.1%로 7월 7.7%에서 확대
- 중앙은행(NBU)은 7월 전망에서 2026년 연간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기존 9.4%에서 10.0%로 상향했으며, 2027년 전망치도 6.5%에서 6.9%로 상승

○ 우크라이나 건설업, 2026년 1~7월 공사실적 11.2% 감소(9.8)

- 우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 1~7월 건설공사 규모는 1,301억 흐리우냐로 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했으며, 모든 주요 부문에서 실적이 위축
- 부문별로는 주거용 건설이 4.1% 증가한 192억 흐리우냐를 기록한 반면, 비주거용 건물은 9.1% 감소한 429억 흐리우냐, 토목공사는 14.4% 감소한 680억 흐리우냐를 기록
- 건설비용 상승도 부담으로 작용해 2026년 6월 건설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23.1% 상승했으며, 전월 대비로도 1.5% 증가
- 회복세를 보였던 우크라이나 건설업이 2026년 들어 전쟁 위험과 전력난, 공공 인프라 투자 축소 및 비용 급등으로 다시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남

③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

○ Equinor·Polenergia, 발트해 해상풍력단지 'Bałtyk 2·3' 건설 본격화(9.1)

- Equinor와 Polenergia는 발트해에서 총 1,440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Bałtyk 2·3 건설을 진행 중이며, 두 단지의 전체 면적은 약 239km²로 포즈난시 면적에 육박하고 각각 720MW 규모로 조성될 예정
- Bałtyk 2·3은 2027년 최초 전력 생산, 2028년 상업운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설계수명은 약 30년으로 향후 수십 년간 폴란드 전력 시스템의 주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전망

○ 폴 국영 방산기업 PGZ, 우크라와 지상 무인체계 공동생산 협상(9.2)

- 폴 국영 방산그룹 PGZ는 우크라이나 방산기업과 지상 무인체계(UGV)

공동생산을 협상 중이며, 8월 기밀정보 교환을 위한 비밀유지협약(NDA)을 체결

- PGZ는 UGV 외에도 우크라이나산 F-16·MiG-29 유지·보수 협력을 검토 중이며, 양국 방산 공급망 및 생산기반 연계가 강화될 전망

○ 폴란드, 2025년 PPA 계약규모 유럽 3위로 도약하며 재생에너지 전력시장 성장세 확대(9.2)

- 폴 PPA 시장은 2025년 4분기 총 984MW 규모의 계약 10건이 체결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한 계약물량을 바탕으로 유럽 3위 PPA 시장으로 부상

○ 중국계 전자상거래 기업의 대형 물류창고 수요 급증으로 폴란드 물류시장 공급부족 및 임대료 상승 압력 확대(9.2)

- EU가 2026년 7월부터 150유로 이하 소액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를 폐지하면서 Shein·Temu·AliExpress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개별 직구 배송에서 유럽 내 물류센터를 통한 대량 수입·현지 주문처리 방식으로 전환, 경쟁력 있는 임대료·인건비와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갖춘 폴란드가 주요 거점으로 부상
-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은 2026년 상반기에만 40만m² 이상의 창고 공간을 임차, 이에 따라 1.5만m² 초과 대형 창고의 가용 면적이 154만m²에서 78만m²로 급감하는 등 대형 물류시설 공급이 빠르게 축소
- 2026년 6월 말 기준 폴란드 물류창고 공실률은 6.3%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 건설 중인 신규 물류시설도 130만m²로 9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상반기 순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해 향후 주요 지역의 임대료 상승 압력이 확대될 전망

○ PSE·Gaz-System·PERN, EU 내 폴란드 에너지 인프라 운영사 공동 대응을 위한 PEIH 설립(9.2)

- 폴 전력망 운영사 PSE, 가스망 운영사 Gaz-System, 석유·연료 인프라 운영사 PERN이 전략적 에너지 인프라 운영사를 대표하는 Polish Energy Infrastructure House(PEIH)를 브뤼셀에 설립

- PEIH는 EU 기관과의 협력 및 정책 대화를 위한 공동 플랫폼으로, 에너지 안보·에너지 전환·유럽 경제의 경쟁력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폴 에너지 인프라 운영사들의 이해관계를 EU 정책·규제 과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
- **LyondellBasell의 중재 제기로 Orlen의 Police Polymers 인수 불확실성 확대(9.2)**
 - 폴 국영 에너지기업 Orlen은 Grupa Azoty의 자회사 Grupa Azoty Polyolefins(GAP)가 보유한 Police Polymers 생산설비 및 관련 자산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Orlen의 기존 폴리머 사업 파트너인 미국계 화학기업 LyondellBasell(LYB)이 거래가 기존 합작투자(JV)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2026년 6월 19일 런던을 중재지로 하는 임시 중재 절차를 개시
 - 해당 분쟁은 Orlen과 LYB가 2003년 설립한 폴리머 합작사업과 연관된 것으로, 양사는 Płock 지역에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생산 설비를 공동 구축해 운영해 왔으며, LYB는 생산제품 판매 등을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짐
 - 양사 간 JV 계약에는 Orlen의 폴리머 시장 내 경쟁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LYB가 Orlen의 Police Polymers 인수를 자사 시장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됨
 - Grupa Azoty는 이번 중재의 공식 당사자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양사는 거래 자체가 중재로 인해 중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
 - Police Polymers는 약 72억 즈워티가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당초 Grupa Azoty가 LYB의 폴리프로필렌 생산기술인 Spheripol 도입을 검토했으나 Orlen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적으로 Grace(현 Standard Industries)의 Unipol 기술을 채택
 - 당시에는 Grupa Azoty와 Orlen이 별도 법인이어서 LYB의 직접 대응이 어려웠으나, Orlen이 Lotos를 통해 해당 설비의 공동 소유자가 된 뒤 전체 자산 인수를 추진하면서 기존 JV 계약과의 충돌 가능성이 부각

- LYB의 입장에서는 Orlen이 Police Polymers를 인수할 경우 기존 JV 사업과 동일·유사한 폴리머 시장에서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으며, 현재 폴리머 시장의 공급과잉 및 수익성 악화 상황에서 신규 생산 설비의 시장 진입은 LYB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중재 결과에 따라 Orlen에는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손해배상 또는 기타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최악의 경우 제재 규모가 Police Polymers 인수의 경제성을 훼손해 Orlen이 거래를 포기하고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
 - Police Polymers는 Grupa Azoty의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에서 핵심적인 자산 매각 거래로 평가되며, 따라서 Orlen의 인수가 차질을 빚을 경우 Grupa Azoty의 재무 정상화 및 향후 구조조정 일정에도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전망
 - 다만 Grupa Azoty 측은 현재까지 Orlen과의 거래가 기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대체 시나리오를 고려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 폴 정부 역시 현재 Police Polymers를 대체할 현실적인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약 80억 즈워티 규모의 투자비가 이미 투입된 만큼 다른 투자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할 경우 막대한 손실 및 정치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
 - 특히 2027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도 거래의 주요 변수로 평가됨. 폴 정부가 핵심 화학·에너지 자산을 외국 기업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정부와 Orlen이 LYB와의 직접적인 합의를 통해 중재 리스크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제기됨
- Grupa Azoty, Police 폴리머 사업 관련 추가 검찰 신고, 수천만 즈워티 규모 부당 지출 의혹 제기(9.4)
 - Orlen, Grupa Azoty의 PDH 사업 인수거래 성사에 낙관적 입장(9.4)
 - Orlen CEO Ireneusz Fafara는 Grupa Azoty Polyolefins(GAP) 인수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에 낙관적이라며 조만간 거래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 Orlen은 GAP 주주들과 잔여 지분 전량 인수를 위한 예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GAP 지분 17.3%를 보유
 - EC Zagłębie Dąbrowskie, Tauron Ciepło와 열공급 계약 갈등 심화(9.2)

- 폴란드 Będzin 소재 열병합발전소(CHP) 운영사 EC Zagłębie Dąbrowskie는 Tauron Ciepło가 2020년 이후 자사로부터 구매하는 열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갈등의 심화되고 있음
- 회사 측은 구매량 감소가 전체 지역의 열수요 감소 때문이 아니라 Tauron 계열사 및 자체 열원으로 공급물량을 전환한 결과이며, 이러한 행위가 독립 열생산사업자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Tauron 그룹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문제 제기
- Tauron 측은 열공급 사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실제 소비자의 수요와 경제성이 없는 설비·용량에 대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임
- CPK, 크라쿠프·실레지아 방면 공항철도 연결선 재검토 추진(9.3)
 - CPK는 기존 CMK(중앙간선철도) 및 1호선과 신공항을 연결하는 남부 연결선의 노선을 재검토 중이며, 크라쿠프·실레지아 방면 장거리 열차가 CPK 공항역까지 직접 운행하는 방안을 제안
 - CPK는 기존 노선안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대규모 토지수용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재검토에 착수
- GDDKiA, S19 Domaradz - Krosno 구간 12.5km 완공 공사 재입찰(9.3)
 - 폴 국가도로청 GDDKiA는 S19 고속도로 Domaradz - Krosno 구간 12.5km의 잔여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신규 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서 제출 기한은 10월 12일까지로 설정
 - 해당 사업은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이 2026년 5월 해지됨에 따라 재추진, 신규 사업자는 기존 공사에 대한 잔여 작업을 이어받아 구간 전체를 완공할 예정
- Połaniec 발전소 전력 계통연계 강화를 위한 변전소 현대화 사업자 선정, 시공사로 Romgos Gwiazdowscy 선정(9.3)
- 폴란드 용량시장 2027년 추가경매 실시,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발전·저장설비에 수십억 즈워티 지원(9.3)
 - PSE는 2027년 공급연도를 대상으로 한 용량시장 추가경매를 실시, 풍력·태양광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해 조정 가능한 발전설비 및 에너지저장설비에 용량계약을 부여

- 이번 경매의 종가는 PLN 325.55~372.04/kW·년으로 결정됐으며, 최종 낙찰 결과는 경매 종료 후 21일이 지난 다음 첫 영업일에 에너지규제청(URE)이 공식 발표할 예정
- Tauron은 석탄화력 발전소 1,394.66MW에 대해 약 PLN 454.03~518.87백만의 용량시장 수익을 확보했으며, 에너지저장설비 14.155MW 및 하이브리드 설비 1.4MW도 각각 추가 계약을 확보
- Enea는 이번 추가경매를 통해 최소 1,595MW의 연간 용량계약을 추가 확보했으며, 2027년 연간계약 기준 총 용량의무는 최소 3,547MW, 예상 수익은 약 PLN 519~593백만 수준
- ZE PAK은 계통 안정화 역할을 수행하는 409MW 규모 발전설비에 대해 약 PLN 133~152백만의 용량시장 수익을 확보할 예정
- 앞선 경매까지 포함하면 2027년 용량시장에서는 2022년 본경매에서 약 PLN 21.9억, 2026년 3월 추가경매에서 약 PLN 440백만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으며, 2026년 공급연도 전체 용량계약 규모도 약 18.8GW·PLN 75억에 달함

○ Orlen 주도로 발트해 에너지 협력체 ‘Baltic Energy Initiative’ 출범, 9개국 14개 에너지 기업·기관 참여(9.4)

- Orlen은 발트해 지역의 에너지 안보·핵심 인프라 회복력 강화 및 북·중부 유럽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9개국 14개 에너지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Baltic Energy Initiative’를 출범
- 참여국은 폴란드·핀란드·스웨덴·덴마크·독일·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노르웨이 등으로, Orlen은 동 플랫폼을 통해 발트해 지역을 유럽 에너지 안보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EU 차원의 에너지 정책 논의에서 역내 공동 입지를 강화할 계획

○ Orlen, OSGE 신규 주주로 PFR 참여 희망, 지분율은 미정(9.4)

- Orlen CEO Ireneusz Fafara는 폴란드개발기금(PFR)의 OSGE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전략적 국책기관인 PFR의 주주 참여가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 에너지부 장관은 앞서 PFR이 OSGE 지분 33%를 인수하고 올해 중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Orlen 측은 아직 관련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
- Elektrotim, PGE Dystrybucja와 총 46.7백만 즈워티 규모 전력망 재건축 계약 2건 체결(9.7)
- Orlen, 폴 국영 방산기업 PGZ 지분 일부 인수 가능성 검토(9.7)
 - 폴 국유자산부가 국유기업 간 지분 재편 및 자산 효율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현재 PGZ 지분 중 최대 45%가 국가 소유의 다른 기업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Orlen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
- PKP Cargo, 회생절차 협약안 제출기한 9월 15일까지 연장(9.7)
 - 폴 국영 철도화물 운송기업 PKP Cargo의 회생절차 최종 협약안 제출 기한이 기존 8월 31일에서 9월 15일로 연장됨
- 폴 정부, KUKKE의 보증·보험 기능 확대 추진, 국방·에너지 전환 등에 최대 100억 즈워티 추가 금융 지원(9.8)
 - 정부는 수출신용보험기관 KUKKE의 법정 업무 범위를 확대해 국가안보·국방 및 에너지 전환 분야에 대한 보험·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
- 폴 Rypin 지역난방공사, 2MW 전기보일러 가동으로 석탄 사용 감축 및 열생산 유연성 강화(9.8)
 - Rypin 소재 MPEC가 기존 열병합발전(CHP) 시스템에 2MW급 전기저항 보일러를 신규 도입·가동했으며, Dalkia Polska Solutions가 설계·인프라 구축부터 시운전까지 종합 시공을 담당
- Koszalin, 301백만 즈워티 규모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건설 추진(9.7)
 - 폴란드 Koszalin시 지방공기업이 현지 엔지니어링 기업 AB Industry와 301백만 즈워티(약 70백만 유로) 규모의 폐기물 에너지화(WtE) 시설 건설 계약을 체결, 연간 3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해 폐기물 내 에너지 성분을 회수할 계획

- 덴마크 Eurowind Energy·폴란드 Windbud, 56백만MW 규모 폴란드 풍력발전소에 8,500만 유로 채용자 확보(9.7)
 - 덴마크 재생에너지 개발사 Eurowind Energy와 폴란드 Windbud가 독일계 금융기관 Nord/LB로부터 85백만 유로 규모의 채용자를 확보하였으며, 대상은 폴란드에서 운영 중인 총 56MW 규모의 풍력발전소 3곳(Znin-Damaslawek, Znin 2, Znin 3)
- 폴란드, EIB “Choczewo 원전 사업에 최대 50% 금융지원 및 주요 투자자 역할 가능”(9.7)
 - 유럽투자은행(EIB)이 폴란드 최초 대형 원전인 Choczewo 원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의를 폴란드 정부와 진행 중이라고 언급
 - EIB의 원전 사업 금융지원은 통상 총사업비의 최대 50% 수준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자금은 다른 투자자·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해야 함
 - EIB는 원전이 탈탄소화, 에너지 안보 및 전력공급 안정성에 기여하는 기술이라는 입장으로, 최근 루마니아 Cernavoda 원전에 8억 유로 규모 대출을 승인하는 등 원전 금융을 확대한 바 있음
 - 한편 EIB는 폴란드 국가원자력연구센터(NCBJ)에 TechEU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인프라·첨단소재·방사성의약품 개발 등을 위한 85백만 즈워티 규모 대출을 제공했으며, 2025년 폴란드에 총 80억 유로를 투자하는 등 폴란드 에너지·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PGE, 전력 인프라 보안 강화를 위해 최대 3억 즈워티 규모 방위·안보 기금 지원 추진(9.8)
 - 폴 국영전력기업 PGE Polska Grupa Energetyczna와 국책은행 BGK는 전력 인프라의 물리적 보호 및 전력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안보·방위 기금(Security and Defense Fund)에서 최대 3억 즈워티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는 양해각서(LOI)를 체결
- 폴란드, 러시아 외교관의 EU 역내 이동 제한 제안(9.8)
 -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은 EU 내 약 2,000명의 러시아 외교관 가운데 약 40%가 러시아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언급하며, 최근 증가하는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

○ **Orlen·Synthos, SMR 사업 지분구조 재정비 및 신규 계약 추진(9.9)**

- Orlen과 Synthos는 내부보안청(ABW)의 부정적 의견을 계기로 OSGE(Orlen Synthos Green Energy)의 지분·소유구조를 재정비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

○ **폴 정부, Orlen Paczka의 Poczta Polska 인수 재추진, 국가 물류사업자 육성 방침(9.9)**

- 국유자산부는 Poczta Polska의 Orlen Paczka 인수가 사실상 유일한 시나리오라는 입장을 밝히며,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
- 정부는 Poczta Polska가 국내 택배·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 물류사업자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PSE, 유럽 MARI 플랫폼 연계 위해 mFRR 시장 개편 추진(9.9)**

- PSE는 유럽 계통운영자 간 mFRR(수동형 주파수복원예비력) 균형조정 에너지 거래 플랫폼인 MARI 연계를 위해 균형시장 규칙 개편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진행중

○ **폴 코샬린(Koszalin) 철도역 재건축 재개, 2028년 상반기 완공 목표(9.8)**

○ **폴 통계청(GUS), 에너지 대기업 대상 '현지조달(Local Content)' 측정 시범사업 추진(9.9)**

- GUS는 Enea·Tauron·PGE·Orlen 등 4개 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조달 비중을 측정하는 시범사업을 7월 중순부터 추진 중이며, 약 250개 투자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사업 규모, 발주처·시공사 등의 정보를 조사

○ **폴란드 하원(Sejm), 바이오메탄·바이오가스 및 에너지저장장치 지원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의결(9.10)**

- 폴란드 하원이 기후환경부가 발의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의결, 바이오메탄·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를 추진

- 전기설비 용량 1MW 초과 바이오메탄 생산시설에 대해 에너지규제청(URE)이 경매 방식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국가보조 규정에 따라 운영지원과 투자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 CPK·키엘체시, 오비체(Obice)에 민군 겸용 철도 화물터미널 구축 협력(9.10)
 - 폴 CPK와 키엘체시가 약 25ha 규모 철도 화물터미널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철도 73호선 및 지방도로 766호선과 연계되는 지역 물류·환적 거점으로 조성 추진
 - CPK의 교통·운송센터(CTM)가 수행한 통합철도망(ZSK) 분석에서 해당 입지의 전략적 가치가 확인됐으며, 향후 철도·도로 인프라와의 연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
- 오션원즈, 폴란드 시비노우이시치에 해상풍력 터미널 임차 개시, BC-Wind 건설 본격화(9.10)
 - Ocean Winds가 BC-Wind 해상풍력 프로젝트 건설을 위해 Świnoujście 해상풍력 터미널 임차를 시작했으며, 임차기간은 2026년 9월~2027년 4분기까지
 - 터미널은 해상풍력 발전기의 모노파일 기초 및 전이구조물(Transition Piece)의 반입·하역·보관·조립·선적 등 설치 전반의 물류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
- Tauron 상반기 투자 24억 즈워티 집행, 배전망·재생에너지·ESS·가스발전 중심으로 투자 확대(9.11)
 - 타우론(Tauron)은 2026년 상반기 24억 즈워티를 투자해 전년 대비 6% 증가했으며, 향후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가스발전·난방 탈탄소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확대 예정
 - 배전망 투자가 17억 즈워티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는 최대 투자 분야로 나타남
- 폴란드 발전사, 장기전력구매계약 종료 관련 보상금 총 174.5억 즈워티 수령, PGE에 91.7억 즈워티 최대 지급(9.11)

- Grupa Azoty, EU 비료산업 지원정책 활용해 생산능력 재건 추진, 시장 불확실성 지속으로 신중한 경영기조 유지(9.11)
- Grupa Azoty, 은행 부채 구조조정 및 국고 지분발행 2026년 4분기 완료 추진, Orlen 폴리올레핀 매각도 순조(9.11)
 - Grupa Azoty는 은행과의 장기 부채 구조조정 협약 체결 및 폴란드 국고 대상 신주 발행을 2026년 4분기 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연내 구조조정 합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
 - 구조조정의 주요 과제로 ▲은행과의 장기 부채 재조정 ▲폴란드 국고 대상 자본확충을 위한 신주 발행 ▲Grupa Azoty Polyolefins의 Orlen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 2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다룰 예정
 - 신주 발행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2027년 3월까지 가능 기간이 연장되지만, 회사는 가급적 2026년 내 발행한다는 방침이며, 현재 은행들과 재무구조조정 조건을 집중 협의 중
 - Polyolefins의 Orlen 매각은 필요한 인허가를 모두 확보한 상태로, 양측 모두 거래 완료 의지가 확고해 거래가 중단되거나 무산될 징후는 없다고 회사 측은 설명
- PSE, 하모니 링크 핵심 인프라 '노르키 220/110kV 변전소' 입지 결정, 2030년 가동 목표(9.11)
 - 폴란드 바르미아-마주리주 정부가 Kalinowo 내 220/110kV 노르키 (Norki) 변전소 건설을 위한 입지 결정을 승인
 - 노르키 변전소는 폴란드-리투아니아 간 전력연계 사업인 '하모니 링크(Harmony Link)'의 핵심 시설로, 220kV 엘크 비스-폴란드 국경 케이블선, 기존 오스트롤렝카-엘크 220kV 송전선, 엘크 비스·비그리 변전소 등과 연계될 예정

4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

-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만공장 민영화, 美·튀르키예·아시아 등 투자

관심 표명, EU 투자자는 부재(9.1)

- 우크라 국유재산기금에 따르면 오데사 항만공장(OPP) 민영화에 미국·튀르키예·아프리카·중동 및 인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최소 1곳의 우크라이나 기업도 인수를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EU 투자자의 참여는 없는 상황
- 2025년 11월 민영화 입찰은 참여자가 없어 유찰, 당시 최저입찰가는 44.9억 흐리우냐, 인수자는 △최소 5억 흐리우냐 현대화 투자 △1년 내 주요 채무 상환 의무를 부담
- 개정된 민영화 조건에서는 최저입찰가를 43억 흐리우냐(약 1.04억 달러)로 4% 인하했으나, 최소 5억 흐리우냐의 현대화 투자 및 기존 핵심 사업 유지 의무는 그대로 유지
- 우크라이나 정부는 다수 해외 투자자 간 경쟁을 통해 최종 매각가격을 높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OPP 민영화를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의 대형 산업자산 매각을 대표하는 역사적 거래로 평가

○ 8월 우-폴 국경 간 양국 철도 물류 증가세(9.2)

- 8월 우크라이나 철도공사(UZ)는 우크라이나-폴란드 국경을 통해 총 174.7만 톤의 화물을 운송했으며, 전월 대비 21.5만 톤 증가
- 이 중 수출 98.7만 톤, 수입 76.0만 톤이며, 광석은 39.3만 톤으로 주요 운송 품목에 포함
- 이조프(Izov)-흐루비에슈프(Hrubieszów) 구간이 최대 물동량을 기록해 87.8만 톤을 운송했으며, 8월 국경 통과 화차는 일평균 1,012대로 전월 대비 7.9% 증가

○ 루마니아, 흑해 항구 봉쇄에 대응해 우 곡물 콘스탄차항 환적 확대 추진(9.3)

- 러시아의 민간 선박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흑해 농산물 수출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 콘스탄차(Constanta)항을 통한 곡물 운송 확대를 추진하며 우크라이나의 글로벌 시장 접근성 지원
- 루마니아 외교장관 Oana Toiu는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콘스탄차항 경유 수출 확대를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국제 식량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

○ 우크라이나 의회, EU 재생에너지 법제 이행 법안 최종 통과(9.2)

- 법안은 바이오연료·바이오액체연료·바이오매스 연료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 추적관리 시스템, 인증 및 독립적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용어와 규제체계를 EU 기준에 맞게 정비
-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디지털화하고, 행정기관의 승인 처리에 법정 기한을 설정해 사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 포함되며, 재생에너지 가속화구역(Acceleration Areas), 재생에너지 공동체(Communities), 자가소비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 능동소비자(Active Consumers)에 대한 법적 지위와 운영체계를 새롭게 규정

○ Ribas Hotels Group, 오데사 Karolino-Buhaz 해안 호텔 재건축에 1.5억 흐리우나 투자(9.3)

- 우크라 호텔 운영기업 Ribas Hotels Group은 오데사 Karolino-Buhaz Spit에 위치한 기존 호텔을 2026년 6월 인수하고, 약 1.5억 흐리우나를 투입해 재건축한 후 2027년 여름 성수기 이전 'Ribas Bugaz' 브랜드로 재개장할 계획

○ 우크라 2개월 연속 전력 순수출국 유지, 8월 수출 64% 급증(9.4)

- 우크라이나는 8월 전력 수출 382,100MWh, 수입 184,000MWh를 기록하며 약 198,200MWh의 순수출 달성, 2개월 연속 순수출국 지위 유지
- 전력 수출은 전월 대비 64.4% 증가한 반면 수입은 5% 증가에 그쳐 전력수급 여건이 크게 개선
- 헝가리가 최대 수출시장으로 173,000MWh(전체 수출의 약 45%)를 공급받았으며, 몰도바·루마니아 수출은 각각 65%, 85% 증가

○ 우크라이나 신축 아파트 가격 5년 중 최대 상승, 건설비·자재·인건비 급등이 주요 원인(9.4)

- 우크라이나 2분기 신규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0.5% 상승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 건설비가 23.1%, 산업제품 가격이 39.1% 상승하는 등 건설자재 및

시공 관련 비용이 급등했으며, 주요 건축자재 가격은 연초 이후 30~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우크라이나 정부, 산업단지 2곳 추가 지정, 총 18억 흐리우냐 투자 및 2,500개 일자리 창출 기대(9.7)

- 우크라이나 내각은 오데사주 'Bessarabian AgroTech Park'와 르비우주 'Khorvatskyi Hostynets' 등 2개 산업단지를 국가 산업단지 등록부에 추가했으며, 양 사업을 통해 총 약 18억 흐리우냐(약 40.2백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고 최대 2,500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

○ 우크라 Nova-Kos, 칼루시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513백만 흐리우냐 투자, 민간투자 기반 사업 확대 추진(9.7)

- 우크라 기업 Nova-Kos는 이바노프란키우스크주 칼루시(Kalush)에 신규 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513백만 흐리우냐를 전액 민간자본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국가·지방정부의 예산 투입은 없을 예정
- 회사는 우크라의 하수처리시설의 약 80%가 노후화·비효율 운영 상태인 만큼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정부·지방정부의 재정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민간자본으로 시설을 건설한 뒤 요금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민관협력형 인프라 투자 모델임이 주목됨

○ 우크라 1.82억 흐리우냐 규모 티타늄 광산기업 민영화에 국내외 투자자 관심(9.8)

- 우크라 국유재산기금(SPFU)은 주요 티타늄 광산자산인 Demurinsky Mining and Processing Plant의 민영화 경매를 10월 20일 실시할 예정이며, 시작가는 18.2억 흐리우냐(약 44백만 달러)
- 이번 민영화 대상인 Demurinsky 공장과 Mykolaiv Alumina Plant는 전쟁 이후 러시아 올리가르히로부터 몰수된 자산으로, 해당 기업은 Dnipropetrovsk 지역의 Vovchanske 광산에서 티타늄·지르코늄 광석을 채굴·선광하고 있으나, 전투지역과의 지리적 인접성 및 일부 사업에 적용되는 수출통제 등이 주요 투자 리스크로 지적
- 우 정부는 티타늄을 포함한 핵심광물(Critical Raw Materials)의 유럽·미국 공급망 내 입지 강화를 추진 중이며, 우크라는 유럽 최대 수준의

티타늄 광석 매장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 **Maersk, 러 공격 여파 속 보리스필 터미널 운영 중단(9.8)**

- 글로벌 해운·물류기업 A.P. Moller - Maersk의 우크라 법인은 운영상의 이유로 키이우주 보리스필(Boryspil) 소재 Bit Vantage 터미널과의 협력을 중단한다고 발표
- Maersk는 앞서 7월 러시아의 항만 공격으로 인해 오데사 지역 흑해 수산항(Black Sea Fish Port)을 통한 우크라 서비스도 일시 중단한 바 있으며, 8월부터는 항만 운영 차질에 대응해 루마니아 콘스탄차항과 우크라 터미널을 연결하는 임시 철도 운송 서비스를 도입
- 해당 철도 서비스는 당초 2026년 10월 1일까지 또는 오데사 지역 항만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출입 화물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

○ **자포리자 원전, 2주 이상 비상 디젤발전기 의존 끝에 외부 전력망 복구(9.8)**

- 러시아가 점령 중인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가 9월 7일 우크라 전력망과 재연결되면서 2주 이상 지속된 비상 디젤발전기 의존 상태에서 벗어남
- 발전소는 330kV Ferosplavna-1 송전선을 통해 오후 7시 2분 전력망에 재접속했으며, 현재 약 11MW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음
- 우크라이나 전력 인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중재로 마련된 국지적 휴전 기간을 활용해 전선 복구 작업을 진행

○ **우크라이나, 폴란드 항만 통한 수출 물량 650만 톤까지 확대 추진(9.9)**

- 양국은 4개 철도 국경통과 지점을 통한 운송량을 월 60만 톤 수준으로 확대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우크라이나산 화물의 폴란드 내 운송망 활용을 강화할 계획
- 우크라이나는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1년 단위 등 장기 운송계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폴란드 운송기업 및 그단스크항과 월 2만 톤 규모 물량에 대한 초기 합의가 이뤄짐

○ **우크라이나, EU 전력시장과의 완전한 통합 추진, 전력 거래시장 연계 준비 착수(9.10)**

- 우크라이나 전력망 운영기관 Ukrenergo, Market Operator, Ukrainian Energy Exchange가 EU와의 전력시장 결합(market coupling) 준비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

○ UNDP·일본, 체르노빌 원전에 2MW 태양광 발전소 설치(9.9)

- UNDP가 일본 정부의 지원으로 체르노빌 원전에 2MW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했으며, 리투아니아가 2024년 기증한 7,000개 이상의 태양광 모듈과 17개 인버터를 활용
- 연간 2백만kWh 이상의 청정전력을 생산해 체르노빌 원전 연간 전력 소비량의 약 5%를 충당하고, 연간 약 16백만 흐리우나의 비용을 절감 예정

○ 우크라이나 드니프로, EIB 지원으로 첫 저장 트램 운행 개시(9.10)

- 드니프로가 21백만 유로 규모 EIB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저장 트램 5대를 도입, 차량은 드니프로 소재 Tatra-Yug가 현지 생산하며, 부품의 최대 70%를 우크라이나 기업에서 조달
- 이번 사업은 EUR 2억 유로 규모 'Ukraine Urban Public Transport Project II'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도시의 전기 대중교통 및 산업 기반을 현대화하기 위한 유럽 차원의 지원사업으로 추진됨

○ 핀란드 기업, 키이우주에 조립식 목조건축 생산공장 건설 추진(9.10)

- 핀란드 기업 Happy Nordic Living Oy는 키이우에 조립식 목조건축 자재·구조물 생산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며,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약 4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

○ 캐나다, 우크라이나에 7개 신규 지원 패키지·6개 공동사업 추진 및 3건 협력문서 체결(9.11)

-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 카니 캐나다 총리는 국방·에너지·재건·보훈·핵심광물 등 분야에서 7개 신규 지원 패키지, 6개 공동 이니셔티브 및 3건의 협력문서를 발표하며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
-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드론 이니셔티브 마켓플레이스(DDIM)'를 구축, 우크라 방공 및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3.5억 달러 규모의 방공요격체계 지원을 JUMPSTART 이니셔티브를 통해 제공

- 에너지 분야에서는 EBRD를 통해 약 4.35억 달러의 대출보증을 제공, 우크라이나 에너지지원기금 및 에너지 인프라에 10백만 달러, IEA 공동사업에 2백만 달러를 추가 지원
- 전후 재건을 위해 캐나다 수출개발공사(EDC)를 통한 2억 달러 규모의 양허성 대출을 지원하였으며, 이와 함께 양국은 핵심광물 분야 협력 이니셔티브를 출범, 캐나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누적 지원액은 260억 달러를 초과할 전망
- ABM-TRADE, 우크라이나 볼린주에 850만 유로 규모 대두 가공 공장 건설, 11월 가동 목표(9.11)
- 前 구글 CEO 에릭 슈미트, 서방에 우크라이나 방산업계 공동생산·투자 확대 촉구(9.11)
 - 전 구글 CEO 겸 이사회 의장 에릭 슈미트(Eric Schmidt)은 서방이 우크라이나 방산산업을 자국 방산체계의 일부로 간주하고, 무기 공동생산 및 생산 능력 확대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
- Amber Infrastructure, 전쟁 중 우크라이나 인프라 투자 동향 및 핵심 전략
 - 핵심 투자 대상으로는 분산형 인프라 사업에 집중과 현지 협력강화를 설명. 중앙집중형 시설 대신 피격 리스크가 적은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및 분산형 전력·물류 인프라 구축에 중점임. Dragon Capital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프로젝트 완성을 높이고, 명확한 현금흐름이 확보된 자산 위주로 투자함
 - 시장 평가 및 투자 환경으로 장기적인 잠재력과 DFI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고 함. 유럽 인접 대형 시장으로서 재건 수요가 막대하며, 과거 대비 제도적 투명성이 개선되는 추세임. 또한, 국제금융기구(IFIs/DFIs)의 참여가 민간 자본의 시장 유입 및 표준 정착을 이끔
 -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서 전쟁 장기화, 시공사(EPC) 확보 난항, 규제 변동성이 핵심 리스크이며, 회수 전략으로는 10~15년 장기 투자를 전제로 수익 회수와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

□ 주요 프로젝트 동향

①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 사업

① 석화(PDH/PP)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Grupa Azoty, ORLEN, 현대엔지니어링, KIND
- (사 업 비) 1,840백만불
- (사업내용) 폴리프로필렌 연간 40만톤 생산
- (추진현황) '19.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
'20. 10월 금융종결
'25. 8월 발주처, EPC 관련 보증 회수(Bond Call)
'25. 10월 ORLEN, Grupa Azoty에 250백만불 규모 투자안 제안
'25. 11월 현지SPC, 폴란드 법원에 구조조정 및 파산 신청
'26. 3월 현지SPC-현엔-카인드 구조조정(안) 관련 합의 완료

○(주요동향) '26년 하반기 중 폴란드 법원의 구조조정(안) 심의 결과 도출 예정이며, 합의내용 중 현금변제(→KIND, EUR 7.5백만) 입금완료

② Ursus 열병합 발전소 건설 운영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KIND, 베올리아, BHI
- (사 업 비) USD 5.04억
- (사업기간) 2026.11.~2054.12. (건설 37개월, 운영 25년)
- (주요내용) 전기 110MWe, 열 90MWt 규모 열병합 발전소 건설 및 운영
- (추진현황) '23. 4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의결
'24. 1월~7월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F/S 컨설팅지원)
'25. 10월 타당성조사 재검증 용역 실시 (남동발전)
'25. 12월 KIND 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
'26. 10월 금융종결 및 NTP 발급
'29. 11월 COD

○ (주요동향) 주주 간 계약 등 주요 계약서 execution version 도출 협의

③ 폴란드 바르샤바 모듈러 주택 단지 개발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GS건설, Cordia, KIND
- (사 업 비) PLN 83.34백만
- (사업내용) 총 전용면적 5,296m², 중형(수평분리) 및 대형주택(수직분리) 36세대 건설
- (추진현황) '25. 2월 GS건설-Cordia 공동개발 논의
'25. 3월 GS건설, KIND向 사업참여 요청
'25. 6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승인
'25. 9월 GS건설-KIND간 공동개발업무협약의향서 체결
'25. 12월 투자심의 승인
'26. 1월 이사회 승인
'26. 6월 이사회 승인(법인설립)

- (주요동향) '26년 6월 이사회 승인(자회사 설립)
'26년 9월 初 투자계약 체결(KIND↔ZEIT)
'26년 9월 中 법인인수(설립)
'26년 9월 末 SPA 체결(KIND PL↔ZEIT)

* 폴란드법 상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인수조치 필요

④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 개발사업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LX판토스, KIND, PIS펀드
- (사 업 비) € 129.7백만 (약 2,075억원)
- (사업내용) 총면적 108,977m² 규모 물류센터 5개동(Phase I: DC 1·2동, Phase II: DC 3,4,5동) 건설
- (추진현황) '24. 4월 물류센터 Phase 1 착공(시공사 자체자금으로 진행)
'25. 9월 물류센터 Phase 1 준공 및 운영 시작
'25. 11월 LH 사업 철회 및 KIND 사업 검토
'25. 12월 KIND 투자승인 / Phase 2 건축물 공사 착공
'26. 1월 금융종결
'26. 3분기 물류센터 Phase 2 준공(예정)

- (주요동향) 폴란드 현지 준공식* 개최 예정(9.9)

* KIND, LX판토스, 해진공 참석

⑤ 폴란드 루블린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및 통합 관제센터

< 사업 개요 >

- (주관기관) 이에스이(주), (주)아이티코어스, (주)영국씨애피
- (수원정부) 폴란드 루블린시청
- (사업기간) '26.4.1 ~ '26.12.26.
- (사업예산) 700백만 원
- (사업내용)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과 통합 관제센터 구축계획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기존 교통관제 고도화 및 실증사업 수행
- (추진현황) '26. 4월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및 현지조사 수행, LOI 체결(4.28)
'26. 6월 MOU 체결(루블린시와 스마트시티 및 루블린 시 사업 추진 협력)
'26. 8월 현지 중간보고회 개최 완료(8.4.)
'26. 9월 국내 초청 역량강화연수 완료(9.6.~9.12.)
'26.12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 (주요동향) 폴란드 현지 중간보고회 개최 완료(8.4)

⑥ 우크라이나 EIPP 전후 재건을 위한 산업전략 10개년 및 3개년 실행 계획 수립 사업

< 사업 개요 >

- (주관기관) 안진회계법인(재무), 현대경제연구원(경제), 스마트도시건축학회(도시)
- (수원정부) 우크라이나 경제농업환경부
- (사업기간) '26.2.13. ~ '26.10.2. (232일)
- (사업예산) 1,241백만원 (재위탁 용역금액 818 백만원)
- (사업내용) 전후 재건을 위한 산업구조를 클러스터 관점에서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함
- (추진현황) '26. 4월 착수보고회 개최 완료(온라인, 27일)
'26. 6월 세부실태조사 수행/URC 폴란드 행사참여(6. 22.~6. 28.)
'26. 7월 역량강화연수 및 중간보고회 개최(7. 19.~7. 25.)
'26. 9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

○ (주요동향) 착수보고회 개최(4.27), 현지조사 및 URC 재건회의 참석(6.25~26)

참고

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

프로젝트명	주요내용	담당기관	추진현황 및 계획
키 이 우 교 통 마스터플랜 (완 료)	• (1단계)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 우선사업 선정 및 pre-FS 등 * '23.12~'24.11 (수행 : 유신 컨소시엄) • (2단계)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 '24.5~'24.11 (수행 :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	KIND LH	•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키이우, '25.4월) • 후속사업(디지털교통 플랫폼 구축) 국토교통 ODA 추진
우만 스마트 시 티 마스터플랜 (완 료)	•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 * '23.9~'24.4(수행 : 제일Eng, 수자원공사 등)	KIND	•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24년 4월) • EDCF 사업화 모니터링 (계속)
보 리 스 필 공 항 현대화 등 재 건 (추 진 중)	•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 공항 확장·개발 (활주로 등)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	한국 공항공사	• 현대화(공항시스템 개선) : '24년 외교부 ODA 선정, PMC 선정 ('24.10월) • 공항MP :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 • 확장FS : 국토부 지원 사업 과업착수('24.12), 최종보고('25.12)
부 차 시 하 수 처 리 시 설 재 건 (완 료)	•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	환경산업 기술원	• Pre-F/S 수행결과 최종 평가 완료('26년 1월) * 환경부 F/S 지원사업 • 현지상황 모니터링 후 후속사업 추진여부 결정
댐 재건 및 현대화 등	• 카호우카 댐,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	수자원 공사	• '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수자원시설 정책, 기술자문), 용역 발주 예정('26년 3분기)
철 도 노 선 고속화 등 (추 진 중)	• 우키이우~폴 바르샤바 구간 중 4개 구간 타당성 조사 ①키이우~지토미르~루츠크~국경(약 375km) ②키이우~빈니차~리비우~국경(약 580km) ③키이우~지토미르~리브네~리비우~국경(약 505km) ④키이우~지토미르~루츠크~리비우~국경(약 525km) *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50→150km/h) 추진 중	철도공단 (* 운영 등 코레일 협업)	•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25년 12월) 및 착수 보고회 개최('25.3월) * 외교부 ODA 지원사업 •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 ('26.12월)